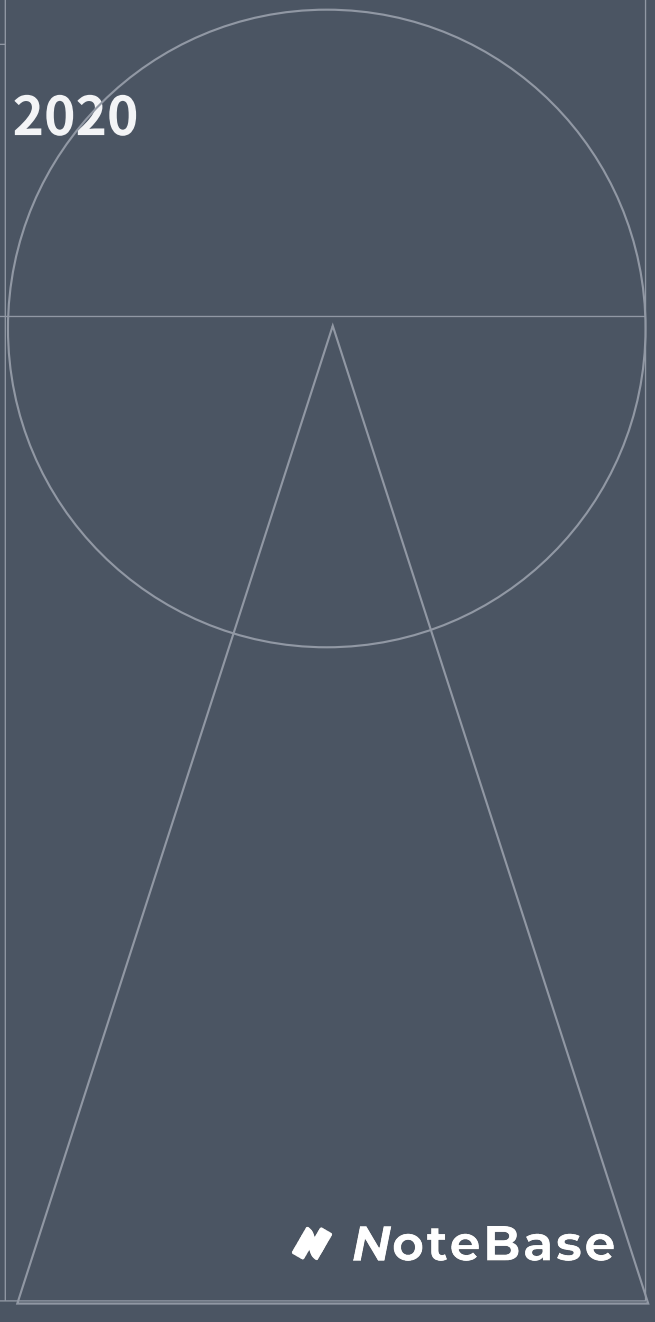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어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어 · 2020

공무원/국가직/7급 · 국어 · 2020

문 1. 밑줄 친 말이 불규칙 활용 용언이 아닌 것은?

① 카페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② 하늘이 맑고 파래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③ 그들은 자정에 이르러서야 집에 도착했다.

④ 외출할 때는 반드시 가스 밸브를 잠가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불규칙 활용과 규칙 활용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불규칙 활용은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일반적인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달라지는 것이다. 르 불규칙은 어간의 '르'가 '러/라' 앞에서 'ㄹㄹ'로 바뀌고('흐르다→흘러'), 러 불규칙은 어간은 그대로인 채 어미 '-어'가 '-러'로 바뀐다('이르다(도달하다)→이르러'). 두 유형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별개의 불규칙 활용이다. ㅎ 불규칙은 어간의 'ㅎ'이 탈락하면서 모음도 달라진다. 반면 '잠그다→잠가'처럼 어간 끝 'ㅡ'가 탈락하는 것은 규칙 활용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밑줄 친 '흘렀다'는 '흐르다'가 활용한 말이다. '흐르다→흘러'처럼 어간의 '르'가 'ㄹㄹ'로 바뀌므로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2번 X: '파래'는 '파랗다'가 활용한 말이다. '파랗다→파래'처럼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도 바뀌므로 ㅎ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3번 X: '이르러서야'의 기본형은 '이르다(도달하다)'이다. 어간은 '이르-' 그대로인 채 어미 '-어'가 '-러'로 바뀌어 '이르러'가 되므로 러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어간의 '르'가 'ㄹㄹ'로 바뀌는 르 불규칙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유형이다. 따라서 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4번 O: '잠가야'의 기본형은 '잠그다'이다. '잠그다→잠가야'는 어간 끝 'ㅡ'가 탈락한 규칙 활용이다. 불규칙 활용 용언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잠가야'처럼 형태가 눈에 띄게 바뀌면 모두 불규칙 활용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ㅡ' 탈락은 규칙 활용이므로 겉모양 변화만 보고 불규칙으로 처리하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본형을 먼저 찾은 뒤, 어간의 '르'가 'ㄹㄹ'로 바뀌는지(르 불규칙),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지(러 불규칙), 'ㅎ'이 탈락하는지(ㅎ 불규칙)처럼 대표적인 불규칙 활용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단순한 'ㅡ' 탈락이면 규칙 활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흐르다는 르 불규칙, 이르다(도달하다)는 러 불규칙, 파랗다는 ㅎ 불규칙, 잠그다는 'ㅡ' 탈락의 규칙 활용이다.

NoteBase

문 2. 밑줄 친 단어가 다의어로 묶인 것은?

① 그는 의심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봄이 오니 나뭇가지에 눈이 튼다.

② 애가 글씨를 또박또박 잘 쓴다.
어른에게는 존댓말을 써야 한다.

③ 어머니가 아끼시던 화초가 죽었다.
아저씨의 거칠던 성질이 요즈음은 많이 죽었다.

④ 폭풍우가 치는 바람에 배가 출항하지 못한다.
나무가 가지를 많이 쳐서 제법 무성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같은 소리를 가진 말이 의미 확장으로 연결된 다의어인지, 아예 다른 단어인 동음이의어인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다의어는 한 단어가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뜻이 확장된 경우이다.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지만 뜻의 관련성이 약하거나 없어 서로 다른 단어로 처리되는 경우이다.
이 문항에서는 두 뜻이 서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우연히 같은 소리만 공유하는지를 보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의심하는 눈'의 '눈'은 보는 표정이나 태도를 뜻하고, '나뭇가지에 눈이 튼다'의 '눈'은 초목의 싹을 뜻한다. 뜻이 자연스럽게 확장된 관계로 보기 어렵다. 틀린 표현은 다의어로 묶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서로 다른 단어인 동음이의어로 본다.
② X: '글씨를 잘 쓰다'의 '쓰다'는 글자를 적는다는 뜻이고, '존댓말을 쓰다'의 '쓰다'는 어떤 말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두 의미는 같은 표제어의 의미 확장으로 보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다의어로 묶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동음이의어로 본다.
③ O: '화초가 죽었다'의 '죽다'는 생명이 없어지다라는 뜻이고, '성질이 많이 죽었다'의 '죽다'는 기운이나 특징이 꺾여 두드러지지 않게 되다라는 뜻이다. 뒤의 의미가 앞의 기본 의미에서 확장된 것이므로 다의어 관계이다.
④ X: '폭풍우가 치다'의 '치다'는 바람이나 비가 세차게 몰아치다라는 뜻이고, '가지를 많이 치다'의 '치다'는 식물이 가지를 밖으로 돋아나게 하다라는 뜻이다. 뜻의 축이 다르므로 같은 단어의 의미 확장으로 보기 어렵다. 틀린 표현은 다의어로 묶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동음이의어로 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같은 소리이면 다의어일 것'이라고 단순하게 보면 틀리기 쉽다. 특히 ①의 '눈', ②의 '쓰다', ④의 '치다'는 일상에서 자주 쓰여 서로 관련 있어 보이지만, 사전에서는 서로 다른 뜻 항목으로 처리되는 대표적인 동음이의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한 뜻이 다른 뜻으로 비유되거나 확장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지 본다. 기본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이어지면 다의어이고, 뜻의 연결 고리가 약해 각각 따로 외워야 하면 동음이의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죽다'처럼 기본 뜻에서 성질·기운의 약화로 이어지면 다의어이고, '눈·쓰다·치다'처럼 뜻이 따로 놀면 동음이의어이다.

NoteBase

문 3. 다음에서 설명한 공감적 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화는 화자와 청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교섭적 행위이다. 공감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에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다.

① 가: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나: 음, 요즘 날씨 때문에 더 그렇지?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니 속이 상하겠구나.

② 가: 시험 날짜가 다가오니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나: 안정감을 가져 봐. 많이 지쳐서 그럴 수 있으니 며칠 쉬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③ 가: 계속 공부를 하니 지치는 것 같아.
나: 몸이 지치면 공부를 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고민만 하지 말고 좋은 방법을 찾아봐.

④ 가: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나: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얘길 하니? 마음을 다잡고 일단 최선을 다해 봤으면 좋겠구나.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감적 대화의 핵심이 상대의 감정과 처지를 이해하여 반응하는 데 있고, 충고·해결책 제시·비난은 공감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공감적 대화는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귀 기울이는 대화이다.
진정한 공감은 잘못을 지적하거나 해결책을 먼저 내놓지 않고, 상대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하며 이해해 주는 반응이다.
따라서 선지에서는 조언, 훈계, 해결 지시보다 감정 확인과 처지 이해가 드러나는지를 본다.

핵심 개념

공감적 대화는 상대의 감정, 생각, 필요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언어로 되비추어 주는 반응이다.
적용 요건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표현이 있고, 평가·비난·충고·해결책 제시가 앞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용 기준

이 문항에서는 나의 말이 상대의 속마음을 이해해 주는 반응인지, 아니면 문제 해결이나 태도 교정을 먼저 요구하는 반응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은 상대의 감정을 짚어 주는가와 조언이나 훈계가 개입되는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니 속이 상하겠구나."라고 하여 상대의 상황과 감정을 짚어 주고 있다. 원인을 단정하거나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고 마음 상태를 이해해 주므로 공감적 대화에 가장 가깝다.
② X: "안정감을 가져 봐"와 "며칠 쉬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는 감정보다 조언과 해결책 제시가 앞선다. 틀린 표현은 조언 중심의 반응이며, 올바르게는 "시험 날짜가 다가오니 많이 불안하겠구나."처럼 감정을 먼저 받아 주는 말이 되어야 한다.
③ X: "고민만 하지 말고 좋은 방법을 찾아봐"는 상대의 상태를 이해하기보다 행동을 요구하는 충고이다. 앞부분의 공감 가능성보다 뒤의 해결 지시가 중심이 되므로 부적절하며, 올바르게는 "계속 공부하느라 많이 지쳤겠구나."처럼 피로감을 인정하는 반응이 되어야 한다.
④ X: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얘길 하니"는 상대를 평가하고 압박하는 말이며, "마음을 다잡고 일단 최선을 다해 봤으면 좋겠구나"도 격려를 가장한 조언이다. 틀린 표현은 비난과 독려 중심의 반응이며, 올바르게는 "이번 결과가 걱정되어 마음이 무겁겠구나."처럼 불안한 마음을 이해해 주는 말이 되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공감적 대화는 따뜻한 말투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의 "며칠 쉬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③의 "좋은 방법을 찾아봐", ④의 "마음을 다잡고"처럼 해결책이나 훈계가 들어가면 공감이 아니라 지도나 충고로 바뀐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 공감 문제는 먼저 상대의 감정을 받아 주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어서 조언·지시·비난·해결책 제시가 끼어드는지를 본다. 감정 확인이 중심이면 공감에 가깝고, 행동 교정이 중심이면 공감적 대화가 아니다.

암기 포인트

공감은 해결보다 이해가 앞서고, 충고보다 감정 반영이 먼저이다.

NoteBase

문 4.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이처럼 면 대 면 소통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른다.
(나) 인간의 소통 방식 중 가장 오래되고 직접적인 것은 면 대 면 소통이다.
(다) 그러나 점차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전신,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다양한 소통 방식이 가능해졌다.
(라) 면 대 면 소통은 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면서 음성, 몸짓, 표정 등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 (나) - (라) - (가) - (다)
② (나) - (라) - (다) - (가)
③ (라) - (가) - (나) - (다)
④ (라) - (나) - (다) - (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장 사이의 지시어와 접속어를 근거로 글의 전개 순서를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나) - 화제를 제시한다. 인간의 소통 방식 중 가장 오래되고 직접적인 것이 면 대 면 소통이라는 총론을 먼저 제시한다.
2. (라) - 앞문장의 면 대 면 소통을 구체화한다.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음성, 몸짓, 표정으로 의미를 주고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3. (가) - 바로 앞 설명을 받아 정리한다. "이처럼"이라는 지시어로 면 대 면 소통의 특징을 묶으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른다고 덧붙인다.
4. (다) - "그러나"로 앞의 한계를 전환한다. 매체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다양한 소통 방식이 가능해졌다고 마무리한다.

왜 이 순서: (라)는 (나)의 "면 대 면 소통"을 받아 설명해야 하고, (가)의 "이처럼"은 (라)의 구체적 설명 뒤에 와야 하며, (다)의 "그러나"는 (가)에서 제시한 제약을 전제로 반전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나)에서 면 대 면 소통을 화제로 제시하고, (라)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한 뒤, (가)에서 그 소통 방식의 한계를 정리하고, (다)에서 매체 발달로 그 한계를 넘어선 소통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2번: X. 틀린 부분은 (다)를 (가)보다 먼저 둔 순서이다. "그러나"는 앞서 제시된 면 대 면 소통의 제약을 뒤집는 접속어이므로 (가) 다음에 와야 한다. 올바르게는 (나) - (라) - (가) - (다)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라)를 맨 앞에 둔 순서이다. (라)는 면 대 면 소통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문장이므로, 먼저 (나)에서 "가장 오래되고 직접적인 것은 면 대 면 소통"이라는 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올바르게는 (나) 다음에 (라)가 온다.
4번: X. 틀린 부분은 (라)와 (나)의 선후관계를 바꾼 점이다. (라)는 독립적인 화제 제시가 아니라 (나)의 핵심어인 면 대 면 소통을 풀이하는 문장이므로 (나) 앞에 올 수 없다. 또한 (다)는 (가)의 제약 제시 뒤에 와야 한다.
올바르게는 (나) - (라) - (가) - (다)이다.

오답 포인트

"이처럼"과 "그러나"의 연결 기능을 놓치면 순서가 흔들린다. 특히 2번처럼 (다)를 먼저 두면 반전의 기준점이 사라지고, 3번과 4번처럼 (라)를 앞세우면 설명 대상인 "면 대 면 소통"이 제시되기 전에 풀이가 먼저 나와 글이 어색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 배열 문제는 먼저 화제 제시 문장을 찾고, 다음으로 그 화제를 설명하는 문장을 붙인 뒤, 지시어와 접속어가 요구하는 전제 문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총론 제시 후 구체 설명, 지시어 정리 후 접속어 전환의 흐름이 순서 배열의 기본 축이다.

NoteBase

문 5. 한시의 한글 풀이를 참조할 때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天高日月明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이 밝고
㉠草木生	땅이 두터우니 풀과 나무가 나도다.
春來梨花白	봄이 오니 배꽃이 하얗고
夏至㉡青	여름이 이르니 나뭇잎이 푸르도다.
㉢黃菊發	가을은 서늘하여 누런 국화가 피고
冬寒白雪來	겨울은 차가우니 흰 눈이 내리도다.

① ㉠: 至厚, ㉡: 木葉, ㉢: 科涼

② ㉠: 地厚, ㉡: 樹葉, ㉢: 秋涼

③ ㉠: 地后, ㉡: 樹葉, ㉢: 私諒

④ ㉠: 地侯, ㉡: 樹草, ㉢: 秋涼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글 풀이에 맞추어 한자어의 뜻과 짝을 정확히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厚는 두텁다의 뜻이므로 '땅이 두터우니'는 地厚가 된다.
葉은 잎, 草는 풀이므로 '나뭇잎'은 樹葉이 맞고 樹草는 '나무와 풀' 쪽의 뜻이 된다.
秋涼은 '가을이 서늘하다'는 뜻이므로 가을 장면과 맞고, 科涼·私諒은 한글 풀이와 대응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全厚'가 틀렸다. '땅이 두터우니'에 맞는 말은 地厚이다. 또한 ㄷ의 '科涼'도 '가을은 서늘하다'에 맞지 않으며 올바르게는 秋涼이다. ㄴ의 木葉은 나뭇잎으로 읽을 수 있어도 이 선택지는 ㄱ과 ㄷ 때문에 전체 조합이 틀리다.
② O: 地厚는 '땅이 두텁다', 樹葉은 '나뭇잎', 秋涼은 '가을이 서늘하다'는 뜻이어서 한글 풀이와 모두 정확히 맞는다.
③ X: ㄱ의 '地后'가 틀렸다. '后'는 '후'로, 두텁다의 뜻이 아니므로 올바르게는 地厚이다. ㄷ의 '私諒'도 '가을은 서늘하다'에 맞지 않으며 올바르게는 秋涼이다.
④ X: ㄱ의 '地侯'가 틀렸다. '侯'는 제후를 뜻하므로 '땅이 두텁다'와 맞지 않아 올바르게는 地厚이다. ㄴ의 '樹草'도 '나뭇잎'이 아니라 '나무와 풀' 쪽의 조합이므로 올바르게는 樹葉이다.

오답 포인트

비슷하게 생긴 한자만 보고 厚·后·侯, 葉·草를 섞으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소리보다 뜻 대응을 묻기 때문에 '두텁다-厚', '잎-葉', '가을-秋, 서늘하다-涼'처럼 뜻을 먼저 맞추는지가 관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글 풀이를 둘 또는 셋의 뜻 단위로 쪼개어 대응시키면 된다. '땅이 두텁다'는 地厚, '나뭇잎'은 樹葉, '가을은 서늘하다'는 秋涼처럼 핵심 명사와 성질을 먼저 맞추면 정답 조합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厚는 두텁다, 葉은 잎, 秋涼은 가을의 서늘함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긔 여남은 일이야 분별(分別)할 줄 이시랴

(나) 내 일 망녕된 줄 내라 하여 모랄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아뫼 아무리 일러도 임이 혜여 보소서

(다) 추성(秋城) 진호루(鎭胡樓) 밧긔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무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는다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라)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 윤선도, 「견회요」에서 —

① (가)에서 슬프든 즐겁든 자신의 할 일만 닦을 뿐이라는 것으로 보아 화자의 강직한 태도를 엿볼 수 있군.

② (나)에서 자신의 잘못을 잘 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타인을 원망하기보다는 화자 스스로의 잘못을 더 뉘우치고 있군.

③ (다)에서 임을 향한 뜻을 밤낮 흐르는 시냇물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지닌 변함없는 연군의 심정을 느낄 수 있군.

④ (라)에서 어버이를 그리는 절절한 정이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 화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짐작할 수 있군.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전 시가의 작품별 핵심 정서와 화자의 태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는 세평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수양에 힘쓰는 태도를 드러낸 작품이다.
(나)는 임을 향한 마음 때문에 보이는 행동이 남에게는 망녕되어 보여도 그 충정을 굽히지 않는 작품이다.
(다)는 밤낮없이 흐르는 시냇물에 임을 향한 끊이지 않는 뜻을 비유한 연군가이다.
(라)는 부모를 그리는 마음을 반복적 표현과 외기러기 이미지로 절실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의 화자는 슬픔과 즐거움, 옳다 함과 외다 함 같은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라고 말한다. 자기 수양에만 힘쓰겠다는 강직한 태도를 읽어 낸 감상으로 적절하다.
② X: 틀린 부분은 '화자 스스로의 잘못을 더 뉘우치고 있군'이다. (나)의 '내 일 망녕된 줄 내라 하여 모랄손가'는 자신의 처지가 남에게 망녕되어 보인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이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는 임을 향한 마음이 너무 간절하여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 것이므로, 화자의 충정과 연모의 절실함을 읽어야 한다.
③ O: (다)는 밤낮 흐르는 시냇물을 끌어와 '님 향한 내 뜻'이 그치지 않음을 말한다. 시냇물에 변함없는 마음을 비유하여 연군의 정을 드러낸 감상으로 적절하다.
④ O: (라)는 '어버이 그린 뜻'을 직접 드러내고, 외기러기 울음까지 겹쳐 부모를 그리는 정을 심화한다. 효를 바탕으로 한 인간적 면모를 짐작한 감상으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망녕된 줄 안다'는 표현만 보고 곧바로 자책과 후회로 연결하면 틀리기 쉽다. 고전 시가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는 말이 반드시 반성의 뜻은 아니며, 뒤에 이어지는 이유와 정서의 방향을 함께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 감상 문제는 먼저 시구가 향하는 대상이 자기 수양인지, 임인지, 부모인지부터 잡아야 한다. 그다음 핵심 어구가 후회인지 충정인지 그리움인지 정서의 방향을 확인하면 부적절한 감상을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가) 수양, (나) 임 향한 충정, (다) 연군의 지속, (라) 부모 그리움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7. ㉠ ~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 오류의 유형으로 ㉠ 서술어와 주어가 서로 호응하지 않는 경우, ㉡ 서술어와의 호응이 필요한 보어가 누락된 경우, ㉢ 서술어와의 호응이 필요한 목적어가 누락된 경우, ㉣ 서술어와의 호응이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가 누락된 경우 등이 종종 관찰된다.

① ㉠: 내 말의 요점은 지속 가능한 기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자.

② ㉡: 나는 이 일의 적임자를 찾는 것보다 내가 직접 되기로 결심했다.

③ ㉢: 겁이 많았던 나는 혼자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이 못내 무서워 동행하였다.

④ ㉣: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의지하기도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문장 오류 유형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ㄱ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문제이다.
ㄴ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보어의 누락 문제이다.
ㄷ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목적어 누락 문제이다.
ㄹ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 누락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은 문장의 주체와 서술 내용이 문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관계이다.
보어는 '되다, 아니다'처럼 특정 서술어와 짝을 이루어야 하는 성분이다.
목적어는 타동사의 대상이 되는 성분이다.
필수적 부사어는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부사어이다.

적용 기준

사례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이 보이면 먼저 마지막 서술어를 찾고, 그 서술어가 주어와 호응하는지, 보어를 요구하는지, 목적어를 요구하는지, 특정 부사어를 요구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내 말의 요점은 ... 노력하자'는 주어인 '요점'과 서술어인 '노력하자'가 호응하지 않는다. '내 말의 요점은 지속 가능한 기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이다'처럼 고치면 자연스럽다.
2번 O: '적임자를 찾는 것보다 내가 직접 되기로'에서 '되다'는 보어를 요구하므로 '적임자가'가 필요하다. '나는 이 일의 적임자를 찾는 것보다 내가 직접 적임자가 되기로 결심했다'처럼 고치면 된다.
3번 X: '동행하였다'는 누구와 함께라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말이지 목적어를 요구하는 말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ㄷ의 사례로 본 부분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ㄹ의 사례이다. 문장도 '겁이 많았던 나는 혼자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이 못내 무서워 친구와 동행하였다'처럼 필수적 부사어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고친다.
4번 O: '의지하기도 한다'는 보통 '사람에게 의지하다'처럼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한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사람에게 의지하기도 한다'처럼 고치면 되므로 ㄹ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3번의 '동행하였다'를 보고 막연히 목적어를 떠올리면 틀리기 쉽다. 실제로는 '동행하다, 의지하다'처럼 특정한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와 '찾다'처럼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 오류 유형 문제는 어색한 서술어를 먼저 찾은 뒤 그 서술어의 문형을 확인하면 된다. '되다'는 보어, 타동사는 목적어, 함께함이나 의존의 뜻을 가진 서술어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암기 포인트

문장 성분 오류는 서술어가 기준이다. '되다'는 보어, '찾다'는 목적어, '동행하다·의지하다'는 필수적 부사어와 호응한다.

NoteBase

문 8.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神智)가 돋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 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 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 (중략) …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써 망한 것이 아니라 ㉣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 나간 것이다.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밤이면 사직(社稷)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樂天)의 뼈였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서 —

① ㉠: 황만근은 후세에 그럴듯한 교훈을 남길 만큼 유식하지 못했다.

② ㉡: 황만근은 빚만 남는 농사에 고생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

③ ㉢: 황만근은 공을 남에게 돌려 주위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했다.

④ ㉣: 황만근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결국 건강이 나빠졌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지문 속 ㉠~㉣의 비유적 표현을 서술자의 긍정적 인물 평가에 맞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글에서 황만근은 지혜롭고 부지런하며 남을 먼저 세우는 인물로 그려진다. 따라서 밑줄 친 표현도 문자 그대로나 부정적으로 읽지 않고, 인물을 높이는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후세에 그럴듯한 교훈을 남길 만큼 유식하지 못했다'이다. 지문은 황만근이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고 했으므로 무식해서 가르침을 못 남긴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자신의 지혜를 교훈처럼 함부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뜻이다.
② O. ㉡은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라며 만류했지만 황만근이 개의치 않고 농사를 지었다는 뜻이다. 선택지는 이 내용을 그대로 풀어 쓴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X. 틀린 표현은 '주위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했다'이다. ㉢은 공이 있을 때 자신보다 남을 앞세워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뜻이지, 남에게 부담을 주었다는 뜻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자기 공을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돌렸다는 뜻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결국 건강이 나빠졌다'이다. 지문은 황만근이 술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 나갔다'고 하여 술을 삶의 일부이자 기운의 근원으로 제시한다. 올바르게는 술을 삶의 정조와 활력의 매개로 삼았다는 뜻이다.

오답 포인트

오답 선지들은 모두 지문의 긍정적 서술을 부정적 의미로 비틀어 놓은 것이 함정이다. ①은 지혜를 무식함으로, ③은 공을 양보하는 태도를 부담으로, ④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술을 파멸의 원인으로 바꾸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평가형 지문에서는 먼저 서술자가 그 인물을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있는지 확인한 뒤, 밑줄 친 표현을 그 평가와 어긋나지 않게 풀어내면 된다. 선택지에 지문에 없는 능력 부족, 폐해, 부정적 결과가 끼어들면 우선 의심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긍정적 인물 평가는 비유도 긍정 방향으로 해석한다. ㉠ 교훈 과시 안 함, ㉡ 만류 무시, ㉢ 공 양보, ㉣ 술은 삶의 물감이다.

NoteBase

문 9.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문자와 달리 한글은 여러 가지 자모를 조합하여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인코딩(encoding)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만큼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글의 코딩 방식, 다시 말해 컴퓨터에서의 한글 구현 방식은 크게 '조합형'과 '완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합형은 한글의 모든 자모(ㄱ, ㄴ, ㅏ, ㅓ...)에다 일련의 코드를 할당하고, 이를 불러와 조합하여 글자를 구현하는 방식임에 반해, 완성형은 이미 만들어진 글자(가, 각, 간, 갈...) 자체에다 각각의 코드를 할당하여 그 글자를 불러오는 방식이다.
조합형으로는 한글의 구성 원리에 따라 19개의 초성, 21개의 중성, 그리고 28개의 종성을 조합하여 나올 수 있는 11,172자를 표현할 수 있다. 초기 완성형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2,350개의 글자만을 코드에 반영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똠', '휑', '뷁'과 같은 글자는 쓸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확장 완성형'이 나왔고 이어서 '유니코드 2.0'이 개발되었다. 유니코드 2.0은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11,172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자모 또한 포함하여 조합까지 할 수 있다.

① '똠', '휑', '뷁'과 같은 글자를 쓰려면 조합형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군.

② 유니코드 2.0을 사용하면 조합형 방식을 사용해 만들 수 있는 글자를 모두 표현할 수 있겠군.

③ 한글과 달리 영문자를 인코딩할 때에는 완성형 방식의 한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겠군.

④ 컴퓨터로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이미 컴퓨터에는 한글 자모나 글자 각각에 코드가 할당되어 있겠군.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글 인코딩의 조합형, 초기 완성형, 확장 완성형, 유니코드 2.0의 포함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합형은 자모 하나하나에 코드를 주고 이를 조합해 글자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자모 코드와 조합이다.
완성형은 이미 만들어진 음절 글자 자체에 코드를 주고 그 글자를 불러오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음절 단위 코드이다.
초기 완성형은 2,350자만 담았지만, 확장 완성형과 유니코드 2.0은 그 한계를 보완했고 유니코드 2.0은 11,172자의 음절과 자모까지 포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조합형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군'이다. 지문은 초기 완성형에서는 '똠', '휑', '뷁' 같은 글자를 쓸 수 없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확장 완성형이 나오고 이어서 유니코드 2.0이 개발되었다고 했다. 올바르게는 '초기 완성형만으로는 쓸 수 없었지만, 확장 완성형이나 유니코드 2.0으로는 표현할 수 있겠군'이다.
② O. 지문은 유니코드 2.0이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11,172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했다. 따라서 조합형으로 만들 수 있는 글자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추론은 맞다.
③ O. 지문 첫머리에서 영문자와 달리 한글은 여러 자모를 조합해 글자를 만든다고 했다. 따라서 영문자는 한글처럼 조합형과 완성형의 범위를 따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추론은 타당하다.
④ O. 조합형은 자모마다, 완성형은 음절 글자마다 미리 코드를 할당해 두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입력하기 전부터 컴퓨터에는 자모나 글자 각각에 대응하는 코드가 마련되어 있다는 추론은 맞다.

오답 포인트

초기 완성형의 한계를 완성형 전체의 한계로 확대하면 ①에 끌리기 쉽다. 지문은 초기 완성형의 부족을 확장 완성형과 유니코드 2.0이 보완했다고까지 설명하므로, 특정 시기의 완성형과 완성형 일반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코딩 방식 비교 문제는 무엇에 코드를 주는지부터 본다. 자모에 코드를 주면 조합형이고, 이미 완성된 음절에 코드를 주면 완성형이다. 이어서 각 방식이 포함하는 글자 수와 보완 관계를 확인하면 선지의 과장 여부를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조합형은 자모 코드의 조합, 완성형은 음절 코드의 호출, 유니코드 2.0은 11,172자와 자모까지 포괄한다.

NoteBase

문 1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유지상주의자에게 있어서 사회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될 때 정의롭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약으로부터의 자유'인 '프리덤(freedom)'과 '강제로부터의 자유'인 '리버티(liberty)'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프리덤이 강제를 비롯한 모든 제약의 전적인 부재라면, 리버티는 특정한 종류의 구속인 강제의 부재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는 물리적 힘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거나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프리덤과 리버티가 동의어일 수 없는 이유는 다음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일부 국가의 어떤 시민은 특정 도시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위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정부는 법률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거나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해당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A국 시민은 거주지 이전의 허가가 필요 없어서 국가로부터의 어떠한 물리적 저지나 위협도 받지 않는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A국 시민이 원하는 곳에 실제로 이사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시민은 이사 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거나, 이사 가려는 곳에서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실현할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강제와 무관하게 다른 많은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들이 두 가지 자유를 모두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제를 극소화하는 것, 특히 정부의 강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통해 얻는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주장한다.

② A국 시민들은 다양한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거주지 이전에 관한 '프리덤'을 보장받고 있다.

③ '리버티'에 대한 제한은 직접적인 물리적 힘보다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④ 개인의 행동에 대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면, 그 개인의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유지상주의가 구분하는 프리덤과 리버티의 차이, 특히 모든 제약의 부재와 강제의 부재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프리덤: 강제를 포함한 모든 제약이 전반적으로 없는 상태를 뜻한다. 돈이나 일자리 부족처럼 국가 강제와 무관한 사정 때문에 원하는 바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프리덤의 제한에 해당한다.
리버티: 특정한 제약인 강제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 국가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며 행동을 막지 않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지문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두 자유를 모두 극대화해야 한다고 보지 않으며, 특히 정부의 강제적 간섭을 최소화해 얻는 자유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한다. 틀린 표현은 '제약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올바르게는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2번: X. A국 시민은 거주지 이전에 대해 국가의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국가 강제로부터의 자유인 리버티를 누린다. 그러나 돈이 없거나 원하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실제 이사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프리덤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틀린 표현은 '프리덤'이다. 올바르게는 '리버티를 보장받고 있다'이다.
3번: X. 지문은 강제가 직접적 물리력 행사나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의 형태로 나타난다고만 했을 뿐, 어느 쪽이 더 많다고 비교하지 않았다. 틀린 표현은 '더 많다'이다. 올바르게는 '직접적 물리력 행사나 위협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이다.
4번: O. 개인의 행동에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허가 없이 행동할 경우 국가가 제재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구조를 전제하므로, 이는 강제로부터의 자유인 리버티가 제한되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프리덤과 리버티를 둘 다 '자유'로만 읽으면 1번과 2번이 맞아 보이기 쉽다. 이 지문에서는 모든 제약의 부재와 국가 강제의 부재를 분리해서 읽어야 하며, 3번처럼 본문에 없는 비교 표현인 '더 많다'도 바로 걸러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를 볼 때 먼저 그 자유가 모든 제약의 부재를 말하는지, 국가나 타인의 강제만 문제 삼는지를 구분한다.
이어서 본문에 없는 비교어, 확대 해석, 개념 바꿔치기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면 정답을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프리덤은 모든 제약의 부재, 리버티는 강제의 부재이다. 자유지상주의는 두 자유 전체보다 국가 강제를 줄이는 리버티에 초점을 둔다.

NoteBase

문 11.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등인은 법을 사랑하고, 중등인은 법을 두려워하며, 하등인은 법을 싫어한다. 법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범하기 부끄러워하고, 법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를 범하기 싫어하지마는, 법을 싫어하는 자는 이를 범하기 부끄러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기회만 만나면 하고 싶은 대로 저질러 거리끼는 것이 없다. 그가 다만 죄를 저지르지 않는 까닭은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처지가 그럴 수 없기 때문이지, 그의 심사가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법률상 인품을 논의하여 세 등급으로 구별한 것은 후천적인 학식의 환경과 지각의 계층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라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인간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은 ( )

①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다.

②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데 있다.

③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보다 교화에 힘쓰는 데 있다.

④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보다 계층 통합에 힘쓰는 데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지문이 인간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는 핵심 수단을 법의 엄격성보다 교화에서 찾는다는 결론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교화는 후천적 학습과 감화를 통해 사람의 품성과 행동을 바꾸는 방법이다. 이 지문은 범죄 감소의 원인을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데서 찾는다.

엄격한 법률은 처벌과 강제로 행위를 억제하는 장치이다. 지문은 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풍속을 바로잡는 근본 방법으로는 교화를 더 중시한다.

계층 통합은 사회 계층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일이다. 지문에는 계층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는 사람의 차이가 후천적 환경과 지각 수준에 따른다는 설명일 뿐 결론으로 제시된 대안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이다. 지문은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을 법 적용의 정밀함에서 찾지 않고, 교화가 널리 베풀어질수록 범죄가 줄어든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보다 교화에 힘쓰는 데 있다"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데"이다. 지문에는 상황별 적용이 핵심 기준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결론은 법의 운용 방식이 아니라 교화의 확대가 풍속 교정의 핵심이라는 데 있다. 올바르게는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보다 교화에 힘쓰는 데 있다"이다.

③ O
지문은 사람의 차이가 후천적 학습 환경과 지각의 차이에서 생기므로, 교화가 널리 시행될수록 범죄 건수도 줄어든다고 말한다. 따라서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을 법률의 엄격성보다 교화에 두는 ③이 지문의 결론에 맞는다.

④ X
틀린 부분은 "계층 통합에 힘쓰는 데"이다. 지문에 계층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도, 이는 인품의 차이가 후천적 조건에 따른다는 설명일 뿐 풍속 교정의 직접 해법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교화에 힘쓰는 데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앞부분에 법과 범죄 이야기가 반복되어 법을 엄격히 정하는 방향이 정답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정답 판단의 핵심은 접속어 "그러나" 이후와 마지막 결론 문장이다. ④도 지문 속 "계층"이라는 낱말만 붙잡으면 흔들릴 수 있지만, 계층은 원인 설명에 쓰였을 뿐 해결책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요약형 문항은 대비를 나타내는 접속어 뒤의 결론 문장을 먼저 확인하면 된다. 지문이 앞에서 법의 기능을 언급하더라도 끝에서 더 중시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찾으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이 지문의 결론은 법의 엄격성보다 교화의 확대가 풍속 교정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승(女僧)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점(金店)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 —

①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② 어린 딸아이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④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슬픔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의 표현 방식과 시상 전개 방식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토속적 시어는 지역적이고 향토적인 삶의 분위기를 살리는 말이다.
우회적 표현은 사건이나 대상을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이나 장면으로 에둘러 드러내는 방식이다.
시간 순서에 따른 시상 전개는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장면이 이어지는 방식인데, 이 작품은 현재의 정서와 과거의 장면, 긴 시간의 경과가 교차한다.
공감각적 이미지는 한 감각을 다른 감각의 언어로 옮겨 정서를 선명하게 만드는 표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지취', '섶벌', '지아비' 같은 토속적 시어가 쓰여 향토적 분위기와 현장감을 높인다.
② O: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에서 죽음을 직접 말하지 않고 '돌무덤으로 갔다'라고 하여 어린 딸아이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③ X: 틀린 부분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이다. 이 시는 여승을 본 현재의 인상, 과거에 들은 사연, '십 년'의 시간 경과, 비극적 장면의 회상이 뒤섞여 있어 시상이 단순한 연대기 순서로 전개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회상과 장면 전환을 통해 여승의 한과 슬픔을 단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이다.
④ O: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는 청각적 대상인 울음에 촉각적 성질인 '차게'를 결합한 공감각적 표현으로, 슬픔의 정서를 더욱 선명하게 한다.

오답 포인트

서술된 사건이 여승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순서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③을 맞는 설명처럼 보기 쉽다. 그러나 이 작품은 사건을 차례대로 보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화자의 기억과 인상을 오가며 비극적 정서를 쌓는 방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상 전개를 묻는 선지는 장면이 이어지는 순서만 보지 않고 화자의 현재 인식, 회상, 시간의 비약이 섞였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판단할 수 있다. 표현상 특징을 묻는 선지는 토속어, 우회적 표현, 공감각처럼 눈에 띄는 시어와 표현을 먼저 잡아 내면 된다.

암기 포인트

백석의 '여승'은 토속적 시어, 우회적 죽음 제시, 공감각적 표현은 맞고 연대기적 시상 전개는 아니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로컬푸드(local food)는 일차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의미한다. 로컬푸드를 물리적 거리로써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좁게는 반경 50km, 넓게는 반경 100km의 농촌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지칭하곤 한다. 그렇다고 해서 로컬푸드가 이 정도의 물리적 거리나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농식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로컬푸드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의 경우 넓게는 반경 160km 정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으로까지 확대하기도 한다. 이는 생산 · 유통 · 소비에 있어서 건강성, 신뢰성, 친환경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한 것이다.

로컬푸드가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로컬푸드 운동은 친환경적이고 자립적이며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생산 · 유통 · 소비하고자 하는 공동체적 노력을 일컫는다. 농업의 해체와 식품 안전성의 위기가 만나는 접점은 로컬푸드 운동이 발아하는 배경이 된다. 전통적인 농업은 관련 인구 감소, 농촌 경제 영세화, '종자에서 식탁까지' 지배하는 거대자본의 위협을 받고 있다.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식품은 물론 자연환경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건강한 소비를 연결하고, 나아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대안적 공동체 운동으로 선순환시키려는 노력이 로컬푸드 운동으로 나타났다.

① 로컬푸드의 범위는 경제적 요소를 고려해서 규정될 수 있다.
② 식품 안전성에 주목하는 로컬푸드 운동은 환경보호 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③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전략으로 해당 지역에서 산출되는 로컬푸드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지역 농가가 거대자본에 의존하여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로컬푸드 운동의 일환일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로컬푸드의 범위와 로컬푸드 운동의 지향을 구분하여 선지의 방향이 지문과 일치하는지 추론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로컬푸드는 일정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이라는 대상 개념이다.
로컬푸드 운동은 그 먹거리를 바탕으로 친환경성, 식품 안전성, 지역 공동체성, 지역 정체성을 살리려는 실천 운동이다.
판단의 기준은 '지역 먹거리의 범위'와 '거대자본의 지배에 맞서는 운동의 방향'을 구분하는 데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로컬푸드의 범위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만으로 고정되지 않고, 일본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미국은 더 넓은 반경까지 인정한다. 이는 생산·유통·소비가 유지되는 방식과 지역 여건까지 함께 고려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음을 보여 주므로 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규정도 추론할 수 있다.

② O
지문은 식품 안전성의 위기와 농약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위기를 함께 제시한다. 또 로컬푸드 운동을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건강한 소비를 연결하는 운동으로 설명하므로 환경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O
지문 끝부분에서 로컬푸드 운동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대안적 공동체 운동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산출되는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것은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④ X
틀린 부분은 '거대자본에 의존하여'이다. 지문은 전통적 농업이 '종자에서 식탁까지' 지배하는 거대자본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고, 로컬푸드 운동은 그 문제에 대응해 지역 공동체 안에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려는 흐름이라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지역 농가가 거대자본의 지배에 맞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로컬푸드 운동의 일환일 수 있다'가 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생산과 소비를 연결한다'는 표현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앞의 '거대자본에 의존하여'가 지문의 방향을 정반대로 뒤집는다. 이 문항은 핵심 명사보다도 '의존하여', '위협', '대응하기 위해' 같은 방향어를 정확히 읽는지가 관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런 추론형 문항은 먼저 지문이 제시한 대상의 정의와 운동의 목적을 분리해서 정리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이후 선지에 거대자본 의존, 지역 공동체 강화, 친환경성, 식품 안전성처럼 지문의 찬반 방향을 가르는 표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로컬푸드는 지역 먹거리이고, 로컬푸드 운동은 거대자본 지배를 줄이며 지역 공동체의 생산과 소비를 잇는 운동이다.

NoteBase

문 14. ㉠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른바 규중 칠우는 부인네 방 가운데 일곱 벗이니 글하는 선배는 필묵과 조희 버루로 문방사우를 삼았나니 규중 녀잰들 홀로 어찌 벗이 없으리요.

이러므로 침선(針線)의 돕는 유를 각각 명호를 정하여 벗을 삼을새, 바늘로 세요 각시라 하고, 침척(針尺)을 척 부인이라 하고, 가위로 교두 각시라 하고, 인도(引刀)로 인화 부인이라 하고, 달우리로 울 낭자라 하고, 실로 청홍흑백 각시라 하며, 골모로 감토 할미라 하여, 칠우를 삼아 규중 부인네 아침 소세를 마치매 칠위 일제히 모혀 종시하기를 한가지로 의논하여 각각 소임을 일워 내는지라.

일일은 칠위 모혀 침선의 공을 의논하더니 척 부인이 긴 허리를 자히며 이르되, … (중략) …

인화 낭재 이르되,
㉠ "그대네는 다토지 마라. 나도 잠간 공을 말하리라. 미누비 세누비 놀로 하여 저가락같이 고으며, 혼솔이 나곧 아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이 고으리요. 침재(針才) 용속한 제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것도 내의 손바닥을 한번 씻으면 잘못한 흔적이 감초여 세요의 공이 날로 하여 광채 나나니라."
— 작자 미상, 「규중칠우쟁론기」에서 —

① 풍자적 표현을 통해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각자의 역할과 직분을 지켜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③ 자신의 도움을 통해 상대방이 빛날 수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④ 상대방 말의 허점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전 산문 속 대화에서 말하는 이의 의도가 충고나 비판이 아니라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자랑인지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 인화 낭자는 "그대네는 다투지 마라. 나도 잠간 공을 말하리라"라고 하며 곧바로 자신의 공을 말하겠다고 밝힌다.
- 이어 "혼솔이 나곧 아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이 고으리오"라고 하여 다른 이의 결과가 자신의 도움으로 완성된다고 말한다.
- "내의 손바닥을 한번 씻으면 잘못한 흔적이 감초여 세요의 공이 날로 하여 광채 나나니라"라고 하여 상대가 빛나는 이유가 자기 덕분이라고 강조한다.

NoteBase

핵심 개념

- 자랑하는 말하기는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를 앞세워 우수함을 드러내는 발화 방식이다.
- 충고하는 말하기는 상대가 따라야 할 태도나 행동을 일러 주는 발화 방식이다.
- 비판하는 말하기는 상대의 잘못이나 허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이 있는 발화 방식이다.

적용 기준

㉠의 중심은 상대의 잘못을 따지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이 보태는 힘 때문에 상대가 더 곱고 빛난다고 내세우는 데 있다. 따라서 말하기 방식은 충고나 논박보다 자기 공을 드러내는 자랑에 가깝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풍자적 표현"과 "내면의 갈등"이다.
- ㉠은 대상을 빗대어 비꼬거나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직접 내세우는 장면이다.
- 올바르게는 자신의 능력과 도움을 과시하는 말하기라고 보아야 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각자의 역할과 직분을 지켜야 한다고 충고"이다.
- 처음에 "다투지 마라"라는 말이 나오지만, 핵심은 생활 규범을 가르치는 충고가 아니라 뒤이어 이어지는 자기 공로의 제시이다.
- 올바르게는 상대에게 교훈을 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자랑하는 말이다.

③ O
- 인화 낭자는 자신이 풀을 먹이고 손질해 주어야 바느질 자국이 감춰지고 세요가 광채를 낸다고 말한다.
- 이는 자신의 도움을 통해 상대방이 더 빛날 수 있음을 내세우는 발화이므로 가장 적절하다.

④ X
- 틀린 부분은 "허점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논리적으로 지적"이다.
- ㉠에 상대의 미흡함을 언급하는 대목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상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길이 필요함을 부각하기 위한 장치이다.
- 올바르게는 상대의 부족함을 발판으로 자신의 공로를 돋보이게 하는 말하기이다.

오답 포인트

"다투지 마라"라는 첫머리 때문에 충고로, 상대의 미흡함 언급 때문에 비판으로 읽기 쉽다. 그러나 발화의 결론이 "내 덕분에 광채가 난다"에 모이므로 핵심 의도는 충고나 비판이 아니라 자기 과시에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말하기 방식 문제는 첫 문장 하나보다 발화의 중심 서술이 어디로 모이는지 확인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결론이 자기 능력 강조에 모이면 자랑, 상대 행동의 교정에 모이면 충고, 허점 폭로 자체에 모이면 비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상대의 부족함을 말하더라도 결론이 "내 덕분에 빛난다"이면 비판형보다 자랑형 발화에 가깝다.

NoteBase

문 15.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한국 아이스하키가 북한을 제압,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국 팀은 13일 쓰키사무 실내 링크에서 벌어진 동계 아시안게임 아이스하키 최종 경기에서 북한을 6 대 5로 제치고 1승 2패를 마크, 일본 중국에 이어 3위에 입상했다.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한국 팀은 이날 필승의 정신력으로 똘똘 뭉쳐 1피리어드 초반부터 파상적인 공격을 펴던 중 3분쯤 첫 골을 성공시키면서 기세를 높였다.

(나) 아이스하키 남북 대결에서 한국이 예상을 뒤엎고 6 대 5로 승리, 동계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팀은 13일 삿포로 쓰키사무 실내 링크에서 열린 북한 팀과의 경기에서 초반 수비 치중에 기습 공격 작전이 적중하면서 승세를 타기 시작, 한 차례의 동점도 허용하지 않고 경기를 끝냈다. 한국 팀은 이로써 북한 팀과의 대표 대결에서 3승 1패로 앞섰다.

① (가)는 '제압', (나)는 '승리'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나)는 (가)보다 경기 결과를 객관적인 태도로 표현했어.

② (가)는 '필승의 정신력으로 똘똘 뭉쳐', (나)는 '수비 치중에 기습 공격 작전이 적중하면서'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는 (나)보다 선수들의 의욕을 강조했어.

③ (가)는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나)는 '예상을 뒤엎고'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와 (나) 모두 경기 전에 한국 팀의 실력이 북한 팀의 실력보다 낮게 평가되었음을 표현했어.

④ (가)는 '3위에 입상했다' (나)는 '동메달을 획득했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와 (나) 모두 아쉬운 경기 결과였음을 강조했어.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같은 경기 결과를 다룬 두 기사문의 어휘 선택을 비교하여 표현 태도와 강조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평가적 표현은 사실 전달에 필자의 판단이나 감정을 실어 드러내는 말이다. 중립적 표현은 사건의 결과를 비교적 담담하게 전달하는 말이다. 성과 강조 표현은 경기 내용 자체보다 순위나 메달 획득 같은 결과를 부각하는 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의 '제압'은 상대를 강하게 눌렀다는 인상을 주는 평가적 표현이고, (나)의 '승리'는 경기 결과를 비교적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나)가 (가)보다 객관적인 태도로 결과를 표현했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② O
(가)의 '필승의 정신력으로 똘똘 뭉쳐'는 선수들의 의지와 정신력을 앞세운 표현이다. 반면 (나)의 '수비 치중에 기습 공격 작전이 적중하면서'는 전술과 경기 운영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선수들의 의욕을 더 강조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③ O
(가)의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과 (나)의 '예상을 뒤엎고'는 모두 경기 전 한국 팀이 북한 팀보다 불리하다고 여겨졌음을 전제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두 글 모두 한국 팀의 사전 평가가 더 낮았음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쉬운 경기 결과였음을 강조했어'라는 판단이다. (가)의 '3위에 입상했다'와 (나)의 '동메달을 획득했다'는 모두 경기의 성과와 결과를 드러내는 표현일 뿐, 쉽게 이겼다는 뜻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6대 5의 한 점 차 승부이므로 접전 끝에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포인트

4번은 '3위 입상'과 '동메달 획득'이라는 결과 표현을 보고 경기 내용까지 단정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결과를 강조하는 표현과 경기 과정이 쉬웠는지를 드러내는 표현은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사문 비교 문제에서는 먼저 각 어휘가 감정과 평가를 싣는지, 사실만 전달하는지, 결과와 과정 중 무엇을 부각하는지 나누어 본다. 그다음 선지가 표현의 기능을 정확히 짚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제압'은 평가적 표현, '승리'는 중립적 표현, '입상·획득'은 성과 강조 표현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세기에 우리가 맞닥뜨린 도전은 나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싶은 욕망과 윤리적·도덕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다. 나를 위해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부수적으로 어떤 피해의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는지 확실히 따져 보는 것,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행동이 생태계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 욕망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구를 결합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이기적 이타주의의 자세이다.
우리는 자긍심을 충족하려는 과시적 소비가 이끌었던 소비의 시대에서 더 신중하게 소비하는 이기적 이타주의 시대로의 점진적 전환을 맞고 있다. 이미 몇 세대에 걸쳐 과시적인 소비를 경험했기에 사람들은 쇼핑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흥미로운 물건을 사는 기쁨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쇼핑이라는 탐험이 사회와 생활 방식에 제공하는 혜택은 많은 사람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 또한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금보다 쇼핑을 줄일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소비 패턴과 품목은 가치관과 태도 변화와 함께 바뀔 것이다.
과시적인 소비는 자긍심을 향한 인간의 욕구로 주도되었지만 사람들은 이런 소비가 가진 함의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기적 이타주의는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고려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다.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지나치게 동정심이 많아지거나 비정한 자본주의자에서 사회복지사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구매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갑자기 옮겨 가지도 않는다.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고 어떻게 구입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① 이기적 이타주의 시대에도 소비의 시대와 비교하여 적지 않은 쇼핑 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군.
②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을 뜻하는 가성비에 집착한 구입이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는 아닐 것 같군.
③ 동물 보호를 위해 가죽제품보다 면제품을 사는 경우도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의 예에 해당될 것 같군.
④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필요보다 사회적 영향을 더 고려해서 물건을 구매할 것 같군.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과시적 소비와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의 차이, 특히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고려의 관계를 정확히 추론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과시적 소비는 자긍심이나 과시 욕구를 충족하려는 소비이다.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되 생태계와 타인에게 미칠 영향도 함께 따지는 균형적 소비이다.
핵심 차이는 자기 욕구를 버리는지가 아니라 개인적 필요와 사회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느냐에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지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쇼핑을 줄일 것 같지 않으며, 소비 패턴과 품목만 바뀐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비의 시대보다 쇼핑 행위 자체가 크게 줄지 않는다고 보는 추론은 타당하다.

② O
가성비에만 집착한 구입은 가격 대비 효용이라는 자기 이익만 좇는 소비에 가깝다.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는 자신의 이익과 함께 타인과 생태계에 대한 고려를 결합하므로, 가성비만을 기준으로 한 소비와는 다르다.

③ O
지문은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생태계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이기적 이타주의라고 설명한다. 동물 보호를 고려해 가죽제품 대신 면제품을 사는 선택은 사회적 영향까지 함께 따지는 소비의 예로 볼 수 있다.

④ X
틀린 부분은 "소비자의 필요보다 사회적 영향을 더 고려해서"이다. 지문은 이기적 이타주의를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고려 사이의 균형이라고 설명할 뿐, 사회적 영향을 소비자의 필요보다 더 앞세운다고 말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소비자의 필요와 사회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있게 물건을 구매할 것"이다.

오답 포인트

4번의 함정은 '사회적 고려를 한다'는 말을 '사회적 영향이 개인의 필요보다 우선한다'로 과장한 데 있다. 지문은 자기 욕구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과 사회적 책임을 결합하는 태도를 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균형', '결합', '함께' 같은 표현이 나오면 어느 한쪽을 완전히 버리거나 더 우선한다고 단정한 선지를 먼저 의심한다. 균형 개념을 우열 관계로 바꾸면 오답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이기적 이타주의는 자기희생이 아니라 균형이다. 자기 이익만도 아니고 사회적 가치만도 아닌 '둘의 결합'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7.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판소리 사설은 운문과 산문이 혼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계층의 청중들을 상대로 하여 ( )으로 발달한 까닭에 언어의 층위가 매우 다채롭다. 그 속에는 기품 있는 한문 취미의 대목이 있는가 하면 극도로 익살스럽고 노골적인 욕설·속어가 들어 있으며, 무당의 고사나 굿거리 가락이 유식한 한시구와 나란히 나오기도 한다. 이 밖에 민요, 무가, 잡가 등 각종 민간 가요가 판소리 사설 속에 많이 삽입되었다.

① 골계적(滑稽的)
② 연행적(演行的)
③ 우화적(寓話的)
④ 적층적(積層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판소리 사설의 언어적 특징을 설명하는 개념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은 여러 계층의 청중을 상대로 하면서 서로 다른 언어 층위가 함께 쌓였다는 점이다.

핵심 개념

적층적: 서로 다른 계층과 양식의 언어가 겹겹이 쌓여 있는 성격이다. 이 지문에서는 한문 취미의 대목, 욕설·속어, 한시구, 민요·무가가 함께 나타나는 점이 이에 해당한다.
골계적: 우스꽝스럽고 익살스러운 성격이다.
연행적: 실제 공연과 청중 반응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격이다.
우화적: 다른 대상에 빗대어 교훈이나 풍자를 드러내는 성격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골계적은 익살과 해학이 두드러진 성격을 말한다. 지문에 익살스러운 표현이 일부 들어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설명의 초점은 여러 언어 층위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다. 틀린 표현은 '골계적'이고, 올바르게는 '적층적'이다.
② X - 연행적은 판소리가 공연 예술이라는 성격과는 관련이 있지만, 지문이 설명하는 것은 공연 방식이 아니라 언어의 층위가 다채롭다는 사실이다. 틀린 표현은 '연행적'이고, 올바르게는 '적층적'이다.
③ X - 우화적은 다른 이야기에 빗대어 교훈이나 풍자를 전달하는 성격이다. 지문에는 비유적 서사나 교훈 전달보다 다양한 언어 층위의 공존이 제시되어 있다. 틀린 표현은 '우화적'이고, 올바르게는 '적층적'이다.
④ O - 적층적은 여러 계층의 언어 요소가 중첩되어 있는 성격이다. 지문은 한문 취미의 대목부터 속어, 욕설, 한시구, 민요, 무가까지 함께 들어 있다고 했으므로 적층적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연행적'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선택지이다. 판소리가 실제로 청중을 상대로 공연되는 예술이기는 하지만, 지문은 공연성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언어의 다층성에 초점을 둔다. '여러 계층', '언어의 층위', '한문 취미 대목-속어-한시구-민요·무가' 같은 표현을 보면 적층성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서로 다른 계층, 문체, 장르의 언어가 함께 섞여 있다는 설명이 나오면 먼저 적층성을 판단 기준으로 잡는다. 공연 여부를 말하면 연행적, 익살과 웃음을 말하면 골계적, 비유와 교훈을 말하면 우화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여러 계층의 청중 + 다양한 문체 공존 = 적층적이다.

NoteBase

문 18.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토록 찾던 그 친구를 오늘 우연찮게 길에서 만났다.

② 당시 변변한 직업이 없던 그는 어디든 취업하길 바랐다.

③ 칠칠치 못하게 그 중요한 문서를 아무 데나 흘리고 다니느냐.

④ 친구가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니 나까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준어와 부정어를 포함해야만 표준어가 되는 형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연찮게: '우연하지 않다'에서 굳어진 말이지만 실제 쓰임은 '뜻하지 아니하게'에 가까워 표준어로 인정되는 표현이다.
칠칠치 못하다: '칠칠하다'가 부정어와 결합한 형태로 주로 쓰여 표준어로 굳어진 표현이다.
안절부절못하다: '안절부절하다'와 뜻은 비슷하지만 표준어는 부정어를 포함한 '안절부절못하다'만 인정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우연찮게'는 형태상 부정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뜻하지 아니하게'의 의미로 굳어진 표준어이므로 적절하다.

② O
'변변한'은 '제대로 갖추어져 충분한'이라는 뜻으로, '변변한 직업이 없던 그는'처럼 쓸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O
'칠칠치 못하게'는 '단정하지 못하고 야무지지 못하게'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준어이다. 부정어가 포함된 이 형태가 표준적으로 굳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X
틀린 부분은 '안절부절하는'이다. 표준어는 '안절부절못하다'이므로 '친구가 그렇게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니'로 고쳐야 어법상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우연찮게'와 '칠칠치 못하게'는 겉모양만 보면 부정 표현이 들어 있어 비표준어처럼 보이기 쉽다. 반대로 '안절부절하다'는 실제 사용이 잦아서 맞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표준어는 '안절부절못하다'만 인정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정어가 포함된 말이 문제로 나오면 실제 표준어가 어느 형태로 굳어졌는지를 본다. 특히 '안절부절못하다'처럼 부정어를 뺀 형태가 널리 쓰여도 표준어가 아닐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정된 기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안절부절은 반드시 '못하다'까지 붙고, 칠칠은 '칠칠치 못하다'가 표준형이다.

NoteBase

문 19. 밑줄 친 부분의 문법적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내가 어제 책을 산 서점은 우리 집 옆에 있다.
② 저는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③ 그 화가는 붓을 놓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④ 횃불을 추켜든 사람들이 골짜기를 샅샅이 뒤졌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계 관형절은 수식받는 명사가 관형절 안의 빠진 성분과 대응하는 절이다. 예를 들어 '내가 어제 책을 산 서점'은 '내가 어제 서점에서 책을 샀다'로, '이마에 흐르는 땀'은 '땀이 이마에 흐른다'로 풀린다.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이 뒤 명사의 내용을 직접 드러내는 절이다. '기억, 생각, 사실, 소문'처럼 내용을 받는 명사와 잘 결합하며, 절 안의 빠진 성분을 복원하는 구조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어제 책을 산 서점'은 '내가 어제 서점에서 책을 샀다'로 풀려 수식받는 '서점'이 절 안의 부사어 자리에 대응하므로 관계 관형절이다. 틀린 판단은 '문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관계 관형절이다.

② O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난 기억'에서 관형절은 '기억'의 내용을 나타낸다. '기억'은 내용 명사이므로 이 절은 동격 관형절이고, 다른 선지의 관계 관형절과 문법적 성격이 다르다.

③ X
'이마에 흐르는 땀'은 '땀이 이마에 흐른다'로 풀려 '땀'이 절 안의 주어 자리에 대응하므로 관계 관형절이다. 틀린 판단은 '다른 것'이라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관계 관형절이다.

④ X
'횃불을 추켜든 사람들'은 '사람들이 횃불을 추켜들었다'로 풀려 '사람들'이 절 안의 주어 자리에 대응하므로 관계 관형절이다. 틀린 판단은 '다른 것'이라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관계 관형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모든 밑줄이 관형사형 어미를 가진다는 공통점만 보면 전부 같은 관형절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관형절은 수식받는 명사가 절 안의 성분으로 복원되는지, 아니면 뒤 명사의 내용을 설명하는지로 다시 갈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뒤 명사가 '기억·생각·사실·소문'처럼 내용을 받는 명사인지 본다. 그런 명사면 동격 관형절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수식받는 명사를 절 안의 주어·목적어·부사어 자리로 되돌려 넣을 수 있으면 관계 관형절이다.

암기 포인트

관계 관형절은 절 안의 빈자리와 연결되고, 동격 관형절은 뒤 명사의 내용을 채운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공정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사용된다. 우리는 종종 어떤 법적 판단에 대해 공정성을 묻기도 하고,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단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묻는다. 공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판단의 결과가 가능한 결과들 중 일부분으로 특별히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은 ‘공평성’이라고 불린다. 두 번째 조건은 ‘독립성’으로, 이는 관련된 판단들이 외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성의 두 조건은 동전 던지기 게임을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게임의 규칙은 동전을 던져 뒷면이 나온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해 보자. 이 게임이 공평하다는 것은 동전 던지기를 충분히 여러 번 진행했을 때의 가능한 결과, 즉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같다는 것을 말한다. 공평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게임의 공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독립성이 공정성의 조건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전 던지기 게임이 독립적이라는 것은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동전 자체가 가진 특성 이외의 특별한 장치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만일 게임에 사용된 동전이 특별한 외부 장치에 의해 조작되어서 앞면이 두 번 나온 뒤에는 항상 뒷면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두 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온 뒤에 게임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전략을 채택한 사람은 언제나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전이 외부 장치에 의해 조작될 경우에는 항상 게임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언제나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임은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독립적이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보기>

ㄱ.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없는 동전 던지기 게임은 독립적이다.

ㄴ. 앞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뒷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앞면이 나오도록 장치가 된 동전 던지기 게임은 공평하지 않다.

ㄷ. 동전 자체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의 차이가 클 때, 그 동전을 이용한 동전 던지기 게임은 공정하지 않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정성, 공평성, 독립성의 관계를 구별하고 보기의 문장을 그 정의에 맞게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공평성은 가능한 결과들이 특정 결과 쪽으로 특별히 치우치지 않는 성질이다.
독립성은 판단이나 결과가 외부 장치 같은 외적인 것에 의해 조작되지 않는 성질이다.
공정성은 공평성과 독립성을 함께 충족해야 성립한다.
독립성이 없으면 공정성은 깨지지만,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평성까지 깨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맞지만 ㄴ이 틀려서 오답이다. 지문은 외부 장치로 조작된 경우에는 언제나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다고 했으므로, 그런 전략을 만들 수 없다면 독립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 ㄴ의 '공평하지 않다'는 표현은 틀리다. 앞뒤가 번갈아 나오도록 조작되면 독립성은 없지만, 앞면과 뒷면의 횟수는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어 공평성까지 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공정하지 않다'이다.
② O
ㄱ, ㄷ만 고른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ㄱ은 조작된 경우마다 패배하지 않을 전략이 생긴다는 지문의 설명을 거꾸로 적용한 것이다. ㄷ은 동전 자체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결과 확률이 크게 달라지면 가능한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치므로 공평성이 무너지고, 따라서 공정하지 않다.
③ X
ㄴ이 틀려서 오답이다. ㄷ은 맞다. 확률 차이가 크면 결과가 특정 면으로 치우치므로 공평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ㄴ은 독립성의 결여를 공평성의 결여로 잘못 바꾸었다. 올바르게는 '앞면 다음 반드시 뒷면, 뒷면 다음 반드시 앞면이 나오도록 장치된 게임은 공정하지 않다'이다.
④ X
ㄴ이 틀리므로 세 문장 모두 맞다고 볼 수 없다. ㄱ은 독립성에 대한 추론으로 맞고, ㄷ은 공평성에 대한 추론으로 맞다. 틀린 부분은 ㄴ의 '공평하지 않다'는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ㄱ, ㄷ만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공정성과 공평성을 같은 말로 읽으면 ㄴ을 맞는 문장으로 보기 쉽다. 이 지문은 공평성과 독립성을 구분한 뒤,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공정성이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독립성이 깨진 사례를 보고 곧바로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함정에 걸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장 속 핵심 술어가 공정성인지 공평성인지부터 구분한다. 그다음 결과의 치우침을 말하면 공평성, 외부 조작 여부를 말하면 독립성으로 연결해 본다. 어떤 조건이 깨졌을 때 다른 조건까지 자동으로 깨지는지 여부는 지문이 직접 말한 범위까지만 인정한다.

암기 포인트

공평성은 결과의 균형, 독립성은 외부 조작 배제, 공정성은 두 조건의 동시 충족이다.

NoteBase